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N.E., Seattle, WA  
98125 (206) 778-1972  
Paul H. Shin,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VOL. 2 NO. 2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EBRUARY 1975

### 한인회 주최

## 제 1 회 워싱턴주 교회대항 배구대회 개최키로

한인회 체육부에서는 제 1 회 워싱턴주 교회대항 배구(남자:국제식)대회를 오는 4월 12일(토요일) 1601 Greenwood N.에 있는 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코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교회별로 등록비 20불을 받고 3월 28일 등록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참가선수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을 증정하며 우승팀에게 상패를 수상토록 한다. 대회를 원만히 실행키위해 각 교회팀 대표자의 의견을 4월 5일(토) 오후 2시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포임을 갖고 시합절차를 토의토록 한다. 자세한 문외는 체육부장 주상길씨 주소 5647 Delridge Way S.W. Seattle, Wash. 98106 전화 938-1180로 연락하시면 도움 말씀드리겠다.

### 1974년도 한인회 결산 보고

1974년도 한인회 회관 건축기금 계정을 제외한 본회 일반기금 계정의 결산을 요약하면, 총수입이 \$ 7,598.20, 지출 \$ 6,183.96로서 \$ 1,414.24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수입의 내역을 보면 아리랑밤 수입(73및 74년도분) \$ 3,217로서 총수입의 42%를 차지하고, 회비가 \$ 1,670, 광고및 제행사수입이 \$ 1,340, 찬조금및 기타 잡수입 \$ 1,371.20 계 \$ 7,598.20이며, 지출에 있어서는 아리랑밤 행사비 \$ 1,780.13, 피크닉및 제행사비 \$ 1,126.09, 회보 1등 인쇄비 \$ 1,005.71, 사무용품및 우표대 \$ 1,085.46, 그리고 사무실을 접합함으로써 업대료, 찬조금및 기타갈비 \$ 1,186.57 계 \$ 6,183.96, 74년도 말 이월 기금은(73년도 이월 기금 \$ 57.01 포함) \$ 1,471.25 이다. 74년도 항목별 기금수입및 지출은 아래와 같다(재무부) (2면에 계속)

### 한인회 정기임원회를

#### 공개회의로 개최키로

지난 2월 한인회 정기 임원회의에서 앞으로 매월 둘째까지 셋째 주일 목요일에 열리는 임원회는 교민들에게 공개리에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바쁜 미국생활에서 교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도움 청하는 일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한인회 사무실에 오셔서 상의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3월 정기 임원회는 13일(목요일) 오후 7시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누구든지 참석하여 보다 밝은 한인사회에 도움되는 말씀이나 건의를 바라고 있다.

### 「재미과학」 지부에서

#### 75년도 첫 모임.

재미 한국과학자협회 Pacific Northwest 지부(한만섭박사:지부장)에서는 2월 20일 45<sup>th</sup> St. N.에 있는 Royal Fork Restaurant에서 1975년도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U.W.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정경훈박사의 귀국 환송 회식을 겸한 모임이었는데 정 박사는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귀임하여 한국원자력 발전연구에 헌신하려 한다.

### 「한국사관」 제 8집 발간 배달 친목회에서

배달 친목회 동인(대표 박압)들이 발간한 「한국사관」은 1973년 4월 창간호 발행후 이밖에 1975년 신년호 제 8집을 발간하였다. 전외부차관으로 판직에 계셨던 윌해 박압선생(70세)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소책자를 계속 발간하고 있다. “한 조상, 한 겨레 한 핏줄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자.”며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간청을 허신다.

### Volunteer 환영 !!

한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려운 교포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용의가 있는 분은 심벌, 연명을 불문하고 한인회 정·부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편의 제공할수 있는 분 (급할시)
2. 통역, 안내를 맡을수 있는 분.
3. 한글 타자기 칠수 있는 분.
4. 영문 타자기 사용할수 있는 분.
5. 회의록 작성.
6. 기타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실수 있는 분.

### 삼일절 기념행사 개최 공고

금년도 3.1절 기념행사는 학생회주최 한인회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날자; 1975년 3월 1일 (토요일)  
시간; 저녁 7시  
장소; 워싱턴대학교 KANE HALL 210호실  
순서; 1부: 기념식  
2부: 음악회

1975년 2월 15일

학생회 회장 김철준  
한인회 회장 신호범

### 한인회 주최 제 1 회 워싱턴주 교회대항 배구대회 개최공고

대회일시; 4월 12일(토요일)  
등록마감; 3월 28일  
등록비; 20불(교회별)  
대표자회의; 4월 5일(토요일)  
(한인회사무실) 오후 2시  
대회장소; Shoreline Community College

한인회 회장 신호범

1974년도 한인회 결산 개요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NCOME STATEMENT ON GENERAL ACCOUNT  
FOR YEAR ENDED DECEMBER 31, 1974

<b>1. 수입 INCOME</b>	
Arirang Night 아리랑 밤	\$3,217.00 *
Donations 환조금	703.07
Membership Dues 회비	1,670.00
Advertising/Sponsorship 광고 및 행사	1,340.00
Others 기타 잡수입	668.13 **
	<u>\$7,598.20</u>
<b>2. 지출 EXPENSES</b>	
Arirang Night 아리랑 밤 행사비	\$1,780.13
Stationery & Supplies 사무용품비	749.60
Postage 우표대	335.86
Printing 인쇄비	1,005.71
Rent of Office/Meeting Places 임대료	310.00
Legal 수수료	50.00
Picnic & Athletic Activities 행사비	1,126.09
Donations 환조 기부금	5.00
Others 기타 잡비용	821.57 ***
	<u>\$6,183.96</u>
3 당기 기금 증가액 (1-2)	
NET INCOME:	\$1,414.24
<b>4. 전년도 아월 기금</b>	
Balance Brought Forward from 1973	
Treasury:	\$ 57.01
<b>5. 차기 아월 기금 (3+4)</b>	
Cash in General Account:	\$1,471.25

Note: \* Includes \$250 received from the 1973 Treasury for Arirang Night.  
\*\* Includes proceeds of picnic luncheon and Korean Ambassador's dinner party.  
\*\*\* Includes editorial, design, typing, and mailing expenses for news letters and 1975 Directory publication.

As of December 31, 1974, account receivables on advertisements in the 1975 Directory amount to: \$850.00. Printing cost for the publication has not been paid.

Also please note that Arirang Night Income and Expenses are both for 1973 and 1974.

Beom Hoe Koo, President & James H. Kim, Treasurer

The above statement has been examined by the auditors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한미 자선회에서 한인교포들을 위한 양로원과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

한미 자선회 문수만(호지.문) 이사장은 재단법인체로 75년 1월 7일 주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자선·봉사 사업을 전개할 청사진을 꾸리고 있다. 한인회보 1월호에 한인회 회비 20년 선납으로 소개된 바 있는 문씨는 일찍이 알래스카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일개 직공에서 사장까지의 험한 길을 근면과 성실로 거스를 마려왔으며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요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8년전에 시애틀에 와서 여러 사업을 벌인 시는 현재 시애틀에 「日光園」과 타코마에 「東洋園」, 그리고 25년이란 역사를 가진 Country music 으로 유명한 Northgate의 「Flame」를 곧 인수할 예정이다. 문씨는 이곳에서 번 돈을 모두 한국 교민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한인회 관계 인사들에게 누차 삼의하고 있다. 문씨는 비록 日本에서 태어나고 美國에서 자랐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한인교포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느낀다고 한다. 한미 자선회 일부계획을 살펴보면 (1) 시애틀-타코마 지구에 양로원을 설치하여 한국계 노인구제를 위하여 (2) 양노원 직원은 대부분 한국인을 고용토록 하여 실업인구를 줄인다. (3) 우선 타코마 지구에 24시간 open 하는 탁아소를 마련하여 자녀를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 (4) 한국에 있는 혼혈아들을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 오도록 주선하여 한국에서 소외되어 자란 그들에게 재정의 기회를 주도한다. (5) 기타 여러 계획은 있지만 우선 한미 자선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실현코자 한다.

한인회 첫 공동회의 개최

지난 2월 1일 토요일 신호법 한인회장관에서 금번들어 첫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인회 이사, 임원 및 회관 설립위원들과 몇 분의 일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수철 부회장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한국어선 증원 회의 시애틀에 입학하기까지의 조난실태와 입학후 법적적인 해결 및 변호사 한미우호를 해친 가사를 개재한 시애틀 타임스 및 P.I. 두 신문 편집국장에게 항의문 제출과 한국 정부의 원앙이성단 감독추진을 다짐하는 항의문을 상항주재 총영사관에 보내도록 했다. 또 4월 말 경에 한인회에서 개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밤」 행사를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나 결호를 못 짓고 임원회에 일임기로 했다. 이번 시도하는 한국의 밤은 역대 한인회에서 개최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산 관계로 이루어 왔던 것인데 이것은 한미 두 나라의 우호증진과 한국 교민들의 미국사회내에서의 법적지위 및 한국 커뮤니티의 능력을 연방정부, 주립부 및 각시, 카운티에 알리고자 하는 뜻과 워싱턴주에 약 400여 호나 되는 한국 교민들을 양자녀로 보살피는 미국인 부모들에게 한국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자 함이다. 이 행사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할 병준 주미대사와 윤 찬 총영사를 초빙하고 워싱턴주 지사 및 각 시장, 카운티 관계 주요 인사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명예명사인 리처드 베리는 시가 \$1,500~\$2,000을 행사경비로 지불하겠다고 응고해 왔으며 T.V와 라디오 인터뷰 주선도 해 보겠다고 알려졌다.

「국제 결혼」에 관한 National Conference

오는 3월 20일(목요일)부터 22일(토요일) 3일간 타코마에서는 미국군인들과 결혼하여 이곳에 온 아세아인 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National Conference 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 가을부터 타코마 한국 부인회 및 D.P.A.A 그리고 Illinois Univ. 사회사업과 교수인 김 복림여사가 상호 긴밀한 연락하에 계획하여온 획기적인 사업인데 그 이외에도 전 미주 장로교본부, Tacoma Community House, Asian American Alliance, 본 한인회등이 주최 단체로서 참가하고 있다.

참가 인원은 이 지방에서 50명 그외 각지에서 3-40명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할만한 젊은 당사자들은 부인들이 회의 및 토론에 직접 참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회의 첫 날에는 주로 Panel discussion, 연구 보고, Small Group Work Shop, 제 2일에는 Field Trip; 제 3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회의를 위해서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21일 저녁에 Korea Dinner를 준비하게 되어 있으며 한인회에서도 Dinner후에 춤, 가야금, 합창, 바이올린 독주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D.P.A.A의 김 실동씨(322-0203), 또는 한인회 총무 장진섭씨(938-0922)에게 문의하기 바람.

75년도 타코마 부인회장에 Mrs. Allred Myong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 타코마 부인회 회의실에서 75년도 타코마 부인회 임원 선거가 실시되어 회장에 Mrs. Allred Myong이 당선되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Mrs. Allred, Myong  
부회장; Mrs. Nielsen, Yang Cha  
의장; Mrs. White, Hong Cha  
부의장; Mrs. Zaharias, Kum S.  
총무; Miss. Yan, Un Cha  
재무; Mrs. Simon, Young  
그리고 고문에는 전년도 타코마 부인회 회장이었으며 한인회 이사로 선출된 남희 Knowles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행사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한인회와도 긴밀한 유대를 갖기를 바라며 일반교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구정맞이」 디너 파티

해마다 구정(음력 2월 11일)을 맞아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고향을 생각하며 「디너 파티」 행사를 하여온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음력 2월 15일 토요일 신일 회장에서 디너 파티를 마치고 이어 東洋園에서 댄스 파티로 흥겹게 보냈다.

Baby sitting Wanted!

Ms. Yim, Chong Sik  
928 N. 88  
Seattle, Wa. 98103  
전화 : 522-0199

Ms. Lee, Byong IK  
1215 N.E. 55th St.  
Seattle, Wa. 98105  
전화 : 525-9031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For Buying, Selling, Counselling of all types of Homes, Acreage and Commercial Properties in Seattle Area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알맞는 주택알선
- 토지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신 호법

### 영주권 카드 곧 바뀔듯

미국 이민당국은 날로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는 한 방법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위조가 불가능한 특수카드를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그린카드는 마그네틱(자력)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식기에 이카드를 넣으면 진짜는 특정한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민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약 5백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이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이보다 2백만이 더 많은 7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도엔 이민당국에서 약 8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으나 금년에는 새로운 밀입자를 260만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 10년간 무려 10배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직장 안내

Sea-Tac Airport에서 여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日本語에 능통하고 英語도 할수 있는 분은 Airport Duty & Tax free shop으로 연락하기 바람. 직접 찾아 가시면지 전화로 433-5610 순차씨에게로 !!

-정정-

한인회보 1월호 Vol. 2 No. 13 → Vol. 2 No. 1으로 고침.  
Pall H Shin은 Paull H Shin으로.  
한인회 주소 1514-15th Ave. N.E. → 11514 15th Ave. N.E.로.

###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사회에의 바랍직한 제안, 정부당국에의 제언,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심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내 주실때나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을 맡은 과공세 씨에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Tel. 632-5322

### 한인회 회비 납부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성론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5불 이상이며 만 18세 이상인 학생 및 독신자는 3불인데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영기하여 본회의 재무인 김종주에게 우송해 주길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때는 수표나 "머니오더"를 이용하고 현금은 철대로 동봉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회비를 내신 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되는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한다.

한인회 재무 김종주 귀하.  
To: CHONG KOO KIM, Treasurer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3051 37th N.E.  
Seattle, Wa. 98125  
1975년도 회비 \$ 5.00 이상 (독신자 \$3.00)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 \_\_\_\_\_, 조합 \$ \_\_\_\_\_ 을 동봉합니다.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입찰순 중앙대 총장 시애틀 방문

지난 2월 9일 중앙대학교 총장인 임철순 박사는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과 같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확장을 위해 미국 여러대학의 의과대학 시설을 시찰중. 워싱턴대학의 의과대학의료 시설을 시찰할 시애틀 방문. 시 두수 박사 안내로 워싱턴대학 총장과의 대화를 하는 임 총장 일행은 도서관 및 동양학부도 둘러보고 11일 시애틀을 떠났다.

자동차 수리  
정 순영  
전화: 937-2454

시계 수리  
이 병익  
전화: 525-9031

### 등 정

- 이 창희선생 (한인회 이사) - 오랫동안 시애틀 제일 한인교회에서 장로직을 맡고 수고하셨던 이 창희선생께서 개인사정으로 시애틀 한인교회 (김동협목사)로 옮겨 조그마한 섬의를 보여드리고 있다 한다.
- 정 경훈 박사 - 부부박사로 널리 알려진 정 박사 내외는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그동안 한인회보에 도움글을 보내주셨던 두 분께 紙上에서 감사 紙面으로 감사!!
- 조 대성씨 - 그동안 워싱턴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마친 씨는 도미 전에 재직했던 중앙대에서 도시계획을 맡기 위해 귀국.
- 유 상수 해군 소령 - 타코마에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했던 유 소령은 지난 1월 귀국. 그동안 교민과의 유대를 원만히 하여 칭송이 자자. 갑자기 귀국하여 편집자도 섭섭. 조국 방위에 근무 충실키 바람.
- 이 주용씨 (한국 여행사 대표) - 타코마에서 한국여행사를 Open 하고 있는 씨는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a. 98499로 이전 확장하고 24시간 여행상담에 응하며 목하 성업중. 전화는 588-0333으로 연락.

# 東洋園

멀리 고국을 떠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교포 여러분에게 고국의 향수를 달래 드리며 내일의 희망과 보람을 드리는 동양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양원"은 12822 Pacific Hwy. S.W., Tacoma 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피로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 하시고 잔주분, 그리고 다정한 연인들 모두 일차 망림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당 동양원에서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며 식당과 오락라운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별히 외국인 "도라지" 룸에서는 각종 양주와 특히 한국의 명주인 O-B 맥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맥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한식과 중국 요리로서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불고기와 불갈비는 당 동양원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아홉시부터는 한국에서 조명한 유명한 악단과 미남 가수이며 울게 연주자인 전 태훈군이 멋진 노래로서 여러분의 향수를 달래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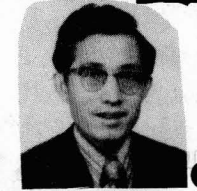
※ 시애틀에 계신 분중에 거리 관계와 귀중 운전으로 혹 실수가 염려되시는 분이나 단렌츠업은 전화 365-5569로 조지-문씨나 363-6850 오대양식품으로 미리 연락해 주시면 동양원 전속 Bus로 안전하게 모셔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배 수완물림.



Phone (206) 598-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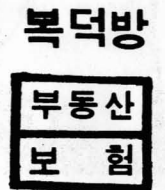
### 믿고 또 찾는



## 안병용

## 부동산 보험

- 가옥 매매
- 부동산 투자
- 사업체 알선
- ▶ 차보험 ▶ 집보험
- ▶ 저축생명보험
- ▶ 교육 보험



복덕방 안 병 용  
(PHILIP BYUNG-YONG AHN)  
LICENSED ASSOCIATE

SHERWOOD & ROBERTS INC.  
4900 STONE WAY AVE. N.  
SEATTLE, WA. 98103

838-2010 (시아돌·타코마 시내전화)  
632-6900 (S. & R. REALTY)  
447-2900 (PRUDENTIAL INS.)

Prudential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부재시에는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뉴코리아 식당

서울서 일류 요리사 조빙!!  
일차 망림하시어 맛보시지 않으십니까?  
한국, 중국, 일본 요리 점심특별 99¢ (11:30 ~ 4:00)



오늘 저녁은 어디까지 먹을까? 의견제출!  
나는 뉴코리아 식당. 중국식당. 일본..  
뉴코리아 식당  
올라지!! 뉴-코리아 식당에 가면 모든것이 OK.  
05~! 물론 한국사람은 한국식당을 애용해야지.

6815 Roosevelt Way N.E. 523-7661  
Open 11:30am ~ 9:30pm (월 ~ 도)



고대 교우회 송년잔치

- 정 남식 Chung, Nam Sik 815 So. 40th Tacoma, Wn. 98408 472-9463
- 최 용걸 Mr. & Mrs. Choi, Young K. 2104 N. 187th Seattle, Wn. 98133 367-0183로 이사
- 김 수정 Mr. & Mrs. Kim, Soo J. 6839 28th Ave. N.E. Seattle, Wn. 98115 522-6894로 이사
- 유 창립 Mr. & Mrs. Yoo, Chang Lim 7723 13th Ave. S.W. Seattle, Wn. 98106 767-4420로 이사
- 주 상걸 Mr. & Mrs. Choo, Sang Kul 5647 Delridge Way Seattle, Wn. 98106 938-1180
- 최 경숙 Ms. Choi, Kyung Sook 4522 Brooklyn N.E. Seattle, Wn. 98105
- 이 종익 Mr. & Mrs. Lee, Chong IK 12228 49th Ave. S. Seattle, Wn. 98178
- 박 관화 Mr. & Mrs. Park, Kwan Hwa 4029 30th Ave. S.W. Seattle, Wn. 98126
- 김 성길 Mr. & Mrs. Kim Sung Kil 7044 -14th Ave. NW Seattle, Wn. 98117 784-4472로 이사
- 정 순영 Mr. & Mrs. Jung, Soon Y. 5013 Delridge Way S.W. #13 Seattle, Wn. 98106 937-2454
- Mr. & Mrs. Lee, John K. 26843 Cardiff Ave Kent, Wn. 98031
- 신 석한 Dr. Shin, Suk Han Empire Medical/Clinic 17 E. Empire St. Spokane, Wn. 99207 328-3430
- Mr. & Mrs. Arlene Spaulding 2130 10th Ave. W. Seattle, Wn. 98119
- Mr. Sang M Lee 6308 24th N.E. Seattle, Wn. 98115 LA5-2261
- 김 종구 Mr. & Mrs. Kim, Chong Koo 13051 37th N.E. Seattle, Wn. 98125 367-0655로 이사
- 이 주응 Mr. & Mrs. Lee, Choo Ung 6415 Steilacoom Blvd. S.W. Tacoma, Wn. 98499 588-0333
- 김 상열 Mr. Kim, Sang Y. 10724 109th S.W. #37 Tacoma, Wn. 98498 588-0736
- 민 철식 Mr. & Mrs. Min, Shul Si-K 8124 Winona Ave. S.W. Tacoma, Wn. 98498 582-6320
- 송 영 Mrs. Song, Young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Wa. 98498 582-5565
- 고 창수 Ko, Chang Su 6021 S. Park Ave. Tacoma, Wn. 98408 474-3363
- 이 영희 Dr. Lee, Hi Young Empire Medical/Clinic 17 E. Empire St. Spokane, Wn. 99207 326-5174
- 김 원국 Mr. & Mrs. Kim, Won Kuk 8627 23th N.E. Seattle, Wn. 98115 523-6066

주소란

- 엄 명보 Mr. & Mrs. Uhm, Myong Bo 1409 2nd St. N.E. Auburn, Wn. 98002 833-3489
- 오 운복 Mr. & Mrs. O, Yun Bok 3732 Woodland Ave. Seattle, Wn. 98103
- 심 상현 Mr. & Mrs. Shim Sang H. 1603 N. 55th Seattle, Wn. 98103 634-0354

- 박 관화 Mr. & Mrs. Pak, Kwan Hwa 4029 30th Ave. S.W. Apt #102 Seattle, Wn. 98126

- 최 창만 Mr. & Mrs. Choi, Chang Man 14828 Military Rod. S. Apt #104 Seattle, Wn. 98168

- 권 수일 Mr. & Mrs. Kwon, Su IL 11652 S.E. 227th Pl. Kent, Wn. 98031

- 강 손식 Kang, Son Si-K 5501 Brooklyn Ave Seattle, Wn. 98105

- 김 윤구 Dr. Kim, Youn Koo Co. A 15th Eng. Bn Ft. Lewis, Wn. 98433

- 신 명희 Mr. & Mrs. Sin, Young Hee 6445 So. Montgomery St. Tacoma, Wn. 98409 472-4030

- 임 정식 Mr. & Mrs. Yim, Chong Si-K 928 N. 88th Seattle, Wn. 98103 522-0199

- 심 태호 Ms. Shul, Tae H. 1019 Terry Ave. S.W. Seattle, Wn. 98104

- 김 명희 Ms. Kim, Myong Hee J. 10209 108th St. S.W. Tacoma, Wn. 98498 588-7561

- 권 이조 Mr. & Mrs. Kwon, E Jo 4009 15th N.E. #223 Seattle, Wn. 98105

- 김 창환 Mr. & Mrs. Kim, Chang Hwan 1317 Born Ave. #506 Seattle, Wn. 98101 682-4158로 이사

- 오 성환 Mr. Oh, Sung Hwan 5201 19th N.E. Seattle, Wn. 98105 LA 4-7011

격려의 편지

멀리 스포케인시에 사는 의사부부인 이희영, 이선명 두분께서 한인회보를 통해 따뜻한 풍포의 정을 나눌수 있다고 격려와 감사의 회비 10불을 한인회에 보내왔기에 고마운 뜻에서 보내 주신 글을 그대로 실립니다. 닥터 리의 병원과 닥에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같이 하시길 한인회여러분과 같이 기원합니다.

HI YOUNG LEE, M.D.  
SUN MYUNG LEE, M.D.  
E. 17 EMPIRE  
SPOKANE, WASHINGTON 99207

관영하세요

지리는 스포케인 이 살고있는 관인 주위입니다. Seattle에서 언리 떨어져 있지만 한인회보를 관심있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인턴진 부터 Spokane 하이, 우리집 애기 라야는 외과실, 라는 인턴과를 (주르 내아.) 개편하고 있습니다.

Spokane 이 유망있을때이 독시 이사 가 필요하시면 지리는 offic이 연락 하여 주십시오. 정신껏 치료제 드렸 습니다.

1975년에는 다져 조별이 은총이 한인회 이 임하시기로 하여 내필크 것은 좋습니다. 관영하) 저십시오.

※ 회비 10불은 동봉합니다. 이희영. 이선명. 3월. 1/29/78

회비 납부자 (2월 20일 현재)

- 19. Louis or Deana Shim \$ 5.00
  - 20. 이 희영 10.00
  - 21. 오 운복 5.00
  - 22. 오 운명 5.00
  - 23. 문 유기 3.00
  - 24. 박 관화 5.00
  - 25. 최 창만 5.00
  - 26. 이 완구 5.00
  - 27. 이 덕희 5.00
  - 28. 안 병용 10.00
  - 29. 한 만섭 10.00
  - 30. Cecily Lee 3.00
- 계 : 71.00  
누계 : 236.00

**동양상점**  
한국고유미와 맛을 자랑  
(주 소)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신품 신품  
\*월~토 10:00AM~8:00PM  
\*일요일 12:00AM~6:00PM  
582-5565

교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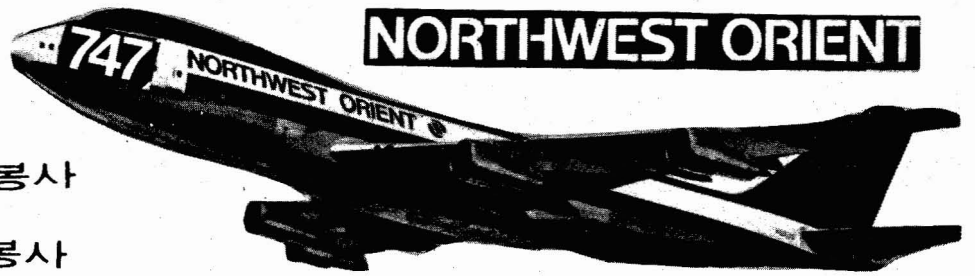
- 정 남식 목사 (타코마 한인중앙교회) - 1동 안 교인수가 늘어나 교회 장소를 3516 So. "D" St로 옮겼고 정목사는 아담한 목사관을 새로 장만하여 교인들의 상담과 친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새 주소는 815 So. 40th Tacoma, Wash. 98408, 전화 472-9463으로.
- 최 용걸 목사 (시애틀 한인교회) - 오랜 동안 묵색했던 목사관을 마련하여 교인들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마련하는 기도회는 목사관에서 실시. 친교에 더욱 도움. 새 주소는 2104 N. 187th Seattle, Wash. 98133 전화 367-0183.

탄생

- 유 재건씨 (전 연세대 동문회장) - 지난 2월 5일 건강한 차남 Andrew 400를 얻었다는 반가운 소식. 유 재건씨는 워싱턴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끝 마칠 예정이었으나 뜻밖바 있어 법률학 공부차 캘리포니아주에 혼자 계신 시는 반가운 소식 듣고 시애틀에 잠깐 다녀감. 형제의 공동 함께 이루어시길 바란다. 형제의 공동 함께 이루어시길 바란다.
- 김 창환씨 - 지난 1월 24일 예쁜 첫따님을 얻어 희색이 반짝. 산모도 건강하다나 다행.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하시길.
- 오 운복씨(현인회 설립) - 한인회 막내 임원으로 자취하는 씨는 지난 1월 일 커여운 첫 아드님을 얻고 그저 슬플뿐. 한인회 봉사에도 심혈분.
- 정 순영씨 (자동차수리전문) - 2월 14일 득남을 하여 이름을 Brian Young이라 지었다고 한다.
- 김 정철씨 - 지난 2월 2일 새벽에 득남했다고.

편집자 코너

먼저 독자 가정에 한 아름 행운과 복을 안겨 드리면서 다시 외롭되게 회보 편집을 맡는 인사에 대하여 한다. 지난해는 한인사회의 누락된 불평불만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긴 했지만 진화과정에서 좌중을 결한 집 없지도 않았다. 하지만 묵은 집은 지난 해로 다 없애버리고 새해부터 웃음부터 찾고 식코 붙잡고 인사할수 있는 풍토부터 바꾸어야겠다. 우리 사회에 언젠가는 한번 오고 가야할 대화들이었다면 모두 속 시원이 털어냈으니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내일을 맞이하자. 누가 어떻게든 한 커로 들어오면 다른 한 커로 흘러가는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스스로 정화시켜 깨끗하고 즐거운 것만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하던 옛 선비들의 고마운 뜻이 지금껏 충고 됨은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 이룰데 없다. "뭔수를 사랑하자"는 하나님 말씀까지 빌릴것 없지만 우리 교민사회에 뭔수가 어디 있고 못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개성과 환경이 다른 여건속에 살아왔고 또 살아갈 인간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자기와 같은 생각과 처편 일출적인 사고방식만 좋다고 하겠는가 (혈육을 나는 천 형제도 못 믿이 있는데...) 자질구레한 불평과 속쓰린 불만이 있더라도 사노라면 언젠 어디서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마음이나 편이 갖자. 다만 응달진 목구불만과 한인사회의 앞날을 위해 추구해야 할 혜택이나 주장을 뚝뚝 뚝뚝 다른 아지하게 미국인이나 더 나아가서 미주내의 다른 異民族들에게 전달하고 자랑스런 民族魂을 밝혀 보여 주는데에 힘쓰도록 하자. 누어더 집 뺄뻬면 재 알굴에 떨어지는것. 아무리 자기 만은 싶다고 무겨도 모두 누운 자리에선 신 사람만 업드려 보임이 아니겠는가. 면이나 「마키아 빌리」가 어떻게 「순자」가 어떻게 했다는 그 방침식은 재발 여기 美 洲 땅에까지 와서 쓰지는 말자. 우리 서로 양보하는 아량, 바보처럼 손해보는 미련도 모히려 좋은것 같다. 「바보」는 凡 俗도 天 賦라 했으니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복스런 人間像 이나. 아무쪼록 새해아침마다 침성드려 비는 마음 같이 한인사회에 좀 더 바람직한 현해가 되도록 빌며 여러분의 많은 성원으로 한 해 더 회보를 달아볼가 한다. "세"



**NORTHWEST ORIENT**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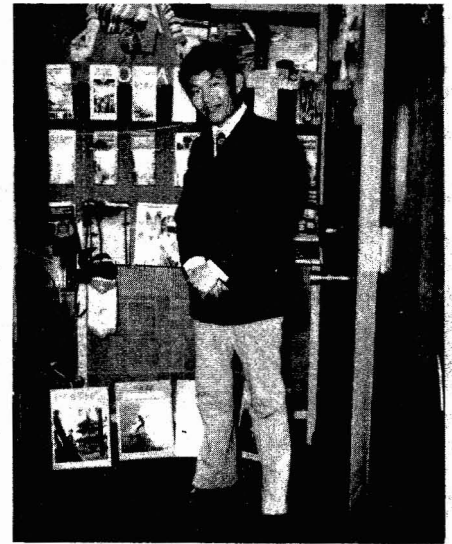
\*여행의 상담자\*

대표: 김창성

624-2227  
 624-2228  
 RES. 776-7115

# 김의 여행사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